

첨단바이오 산업 활성화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 도내 유관기관·바이오 기업들과 간담회... 기술 협력·인프라 구축 등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바이오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첨단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첨단방사선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주)인실리코젠, (주)카이바이오텍, 바이오메이신 등 도내 바이오기업 7곳을 포함해 총 2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반 미생물 혁신허브 구축 사업(첨단방사선연구소)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 점검(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방사선 바이오 성과창출 전략(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또한, 기업들은 △도내 인프라 확충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바이오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및 공동연구 활성화 △전문 인력 교류 및 규제 완화 △바이오·방사선 융합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연계 △

했다.

정읍은 지난 2015년 바이오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바이오 분야 기술평가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의 연구 인프라와 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바이오·방사선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첨단바이오·방사선 분야가 전북의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 내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북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아프리카 5개국 태권도 선수단 초청... 스포츠 외교 본격 시동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연계 초청...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확장 계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5개국(기니,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을 대상으로 스포츠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초청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아프리카 태권도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국제 스포츠 교류 기반을 넓혔다. 행사에는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을 환영하며 전북의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렸다.

이번 초청은 8월28일부터 31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와 연계해 추진됐다.

전북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2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아프리카 태권도 선수단 초청 환영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전 과정을 지원해 국제대회 출전이 어려운 아프리카 선수들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초청 대상은 태권도진흥재단 추천을 통해 선정된 5개국 20명으로, 태권도 주요 국제대회 메달

실적이 없는 개발도상국 선수와 관계자들이다.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세계 3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534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다. 남

녀 각 4세급, 총 8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체급별 1~3위 입상자에게는 오는 2026년 8월 무주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시리즈 2’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폐막 이후인 9월 1일(월)에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프리카 선수단은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덕유산을 방문해 한옥마을 해설 투어, 전통문화 체험, 지역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멋과 맛을 체험하게 된다.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초청으로 전북의 국제 스포츠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이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추석 성묘 대비, 벌초 대행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산림조합, 조합원·장기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내 산림조합에서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정상 직접 벌초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이용 건수는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 △2023년 6,599건 △2024년

7,4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산림조합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기반으로 단순 벌초뿐 아니라 잔디 보수, 묘역 조정, 훼손지 복구까지 꼼꼼하게 관리한다. 특히, GPS(위성항법장치)와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조상 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실묘(失墓)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전화, 인터넷(iforest.mnfc.or.kr), 모바일(mnfc.or.kr)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비용은 묘지 면적, 위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조합별로 차이가 있으며, 산림조합원은 10%, 3년 이상 연속 이용 고객은 추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쭈쭈가무시 털진드기 발생 감시 본격화

10~11월 집중 발생...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부터 연말까지 가을철 유행성 질환인 쭈쭈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털진드기 발생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유행은 9월부터 10월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10월 중순에 가장 밀도가 증가하는데, 여름철에 산란한 알이 초가을에 유충으로 깨어나 적극적으로 숙주를 찾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환자 발생도 증가한다.

쭈쭈가무시증은 지난해 전국에서 약 6,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북에서는 632명이 발생했다. 털진드기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를 채집하여 종을 분류한다.

국내에는 8종의 털진드기가 쭈쭈가무시균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별로 종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채집한 털진드기의 종을 분류한 결과 광릉털진드기(*Neotrombicula kwangneungensis*), 황순털진드기(*Leptotrombicidum scutellare*), 수염털진드기(*L. palpe*)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채집한 털진드기의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털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고 △풀밭 등 직접 접촉 환경을 피하며(뚫지리 사용) △귀가 즉시 샤워 및 옷 세탁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털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자원순환 캠페인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하는 실천형 캠페인으로 자원순환 확산에 나섰다.

도는 26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일회용품 없는 전북, 한 걸음 더!’ 캠페인을 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환경 퀴즈와 물렛 이벤트가 마련돼 도민과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했으며, 선착순 200명에게는 텀블러 가방, 업사이클링 컵, 대화용컵 음료 쿠폰 등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대화용 컵과 다양한 대화용기 전시존도 운영됐다. 특히 도청



내 카페와 연계해 대화용 컵 대여·반납 시스템을 직접 소개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음료 쿠폰을 지급해 실질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이만호 기자

소방헬기-구급대 연계이송 훈련 실시

전북소방,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역량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전북119항공대에서 도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항공 연계이송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09건의 중증환자 항공이송을 수행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구급대원의 항공 연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과

각 소방서 구급대원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항공구급대원과 구급전문교육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방항공기 운영체계 △안전한 헬기 연계이송 절차 △중증환자 평가 및 항공기 내 처치 방법 △환자 탑승 및 연계이송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이경승 119 특수대응단장은 “중증응급환자 헬기이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문성과 속도를 겸비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119특수대응단은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25년 8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8월 19일
진안홍삼품절인증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청산인 고영만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아름답고 청정지역인 장수군 천천면에서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립니다.

농촌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일시: 8월 30일 오후 2시
- 2. 장소: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체육관(위치: 천천면 사무소 앞)
- 3.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
- 4. 주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제전주 천천면 향우회
- 5. 주요행사: 축하공연(식전 및 식후), 개회식, 노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
(063)285-6676, 010-4658-819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